

## 헤이안 신궁과 교토의 부흥

헤이안 신궁은 1800년대 후반에 쇠퇴한 교토의 부흥을 상징합니다. 헤이안 신궁의 창건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옛 도읍의 유산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토는 지금까지 도읍이었던 나라에서 천도한 794년부터 헤이안쿄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쓰기 시작했고,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들어 도쿄가 새로운 수도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천 년 이상에 걸쳐 천황이 거주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도쿄 천도에 따라 헤이안쿄는 교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서 메이지 시대(1868-1912)로 들어서면서 사회는 물론, 정치적인 면에서도 혼란이 거듭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과 천황의 거처가 도쿄로 옮겨감에 따라 교토의 경제는 약화하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도 후 수년간, 인구는 3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870년대에 들어 정부는 교토시에 재정 지원을 실시하며 신산업을 촉진하고 부흥을 장려했습니다. 주요 시책 중 하나가 시가현의 비와호와 교토를 연결하는 비와호 수로 건설이었습니다. 수로를 통해 새로운 발전 방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자를 해운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토에서는 새로운 산업 발전으로 수력 발전소가 개업하였고 노면 전차와 공장 등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교토시에서는 박람회와 견본시를 개최하고 1895년에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4회 내국권업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기업들이 신기술 시연 등을 선보였으며, 박람회의 방문객을 수송하고자 철도역과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노면 전차가 개통되었습니다. 같은 해, 박람회장과 가까운 곳에 헤이안 신궁과 4개의 신엔 중 2곳이 조성되었습니다.

헤이안 신궁은 교토 부흥의 영원한 상징이자 천 년의 도움으로 자리했던 교토의 유산을 기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